

## 『전경』의 숫자 부호 ‘三’의 의미에 대하여

양 연 (楊燕)\*

사천사범대학 · 교수

- |                                    |                              |
|------------------------------------|------------------------------|
| I. 『전경』 중의 ‘삼’                     | IV. 『전경』의 ‘삼’ 과 도교 신선신앙의 연관성 |
| II. 『전경』 중 ‘삼’의 『주역』적 사유           | V. 결어                        |
| III 『전경』의 ‘삼’으로 본 『주역』 ‘삼’의 전승과 발전 |                              |

『전경』은 한국의 신흥종교인 대순진리회의 핵심 경전이다. 이 책에는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의 행적을 기록한 행록(行錄)을 비롯하여 공사(公事), 교법(教法), 권지(權智), 제생(濟生), 예시(豫示)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전경』에 수록된 기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삼(三)’, ‘육(六)’, ‘칠(七)’, ‘이십사(二十四)’, ‘사십구(四十九)’, ‘칠십이(七十二)’ 등 몇몇 특정한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숫자들의 출현은 결코 우연이 아닌바, 그 배후에는 깊은 철학적·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전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대순진리회의 교의(教義)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도들이 상제의 교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성실히 준행하도록 도와주리라 생각한다.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이들 숫자 가운데 ‘삼(三)’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화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한국문화는 전체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

\* 철학박사, 중국 사천사범대학 중국철학과 문화연구소 부교수. 『「주자어류」 경학사상연구』, 『사서개론』 등 저서를 집필하였고, 3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대순진리회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 있는바, 그중에서도 특히 도교사상의 영향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중화의 문화에는 예부터 ‘삼’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 남아 있다. 그 대표적 예는 민간의 결혼 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간의 혼사에서 택일을 할 때, 만약 시일이 촉박하여 길일을 택하는 데 꼼꼼히 따질 시간이 없는 경우 혹은 사람을 불러 택일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아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대체로 ‘삼’자가 들어간 날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삼’이나 ‘십삼’ 혹은 ‘이십삼’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좋은 날’로 여기기 때문이다. 도교문화도 ‘삼’을 숭상한다. ‘삼광(三光)’·‘삼재(三才)’·‘삼관(三官)’·‘삼청(三清)’ 등의 용례가 대표적이는데, 이는 대체로 ‘삼’을 길하다고 생각해서이다. 대순진리회 『전경』의 ‘삼’에 대한 운용도 이와 같다. 중화문화의 민간부분은 도교문화와 항상 뒤섞여 영향을 주고받았기에 양자의 구분이 쉽지 않다. 도교문화에서 ‘삼’을 선호하는 것과 ‘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로 『주역』, 『도덕경』 및 도교 신선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전경』에 나타나는 ‘삼의 운용(用三)’ 현상은 중화문화, 특히 도교문화의 이러한 특징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대순진리회 『전경』에 나타나는 ‘삼’의 운용이 지닌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역』을 기초로 하고 고대의 천문지식을 배경으로 삼으며, 도교적 종교 신령신앙을 근거로 삼는데, 조선(한국)의 역사 문화적 조건 하에서 ‘삼’이 변화하고 활용되는 과정은 도가 신앙을 지향하는 독특한 종교문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I. 『전경』 중의 ‘삼’

『전경』에서 ‘삼’이라는 수는 중요한 공적 업무를 기록하는 부분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상제의 행록에 빈번히 등장한다. 일례로, 『전경』에서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시조(始祖)인 진주(晋州) 강이식(姜以式)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에서, 특별히 31대손 강세의(姜世義)가 고부(古阜)에서 은거한 일과 다시 6대를 내려간 후손 진창(晋昌)·우창(愚昌)·응창(應昌) 3형제 또한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강조한다. 그곳은 예부터 삼신산(三神山)이라 불린 봉래산·영주산·방장산의 하나인 방장산에서 내려온 산줄기에 자리하여 형성된 곳으로, 망제봉(望帝峰)과 영주산이 선인포전(仙人布鬲)의 혈(穴)을 형성한 곳이다. 구천상제께서는 바로 망제산이 길게 이어져 만들어진 시루산(甌山)의 동쪽에서 태어났다.<sup>1)</sup>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서만도 ‘삼’이라는 숫자 부호가 세 번 출현한다. 하나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구천상제(九天上帝)의 시조(始祖) 때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구천상제가 31대 후손의 후예임을 강조하고 또 구천상제의 더 가까운 선조(祖先)가 제31대 손으로부터 내려 온 6대의 후예인 3형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것이나, 여러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여 서술한 것은 대순진리회가 ‘삼’이라는 숫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록 중에 ‘삼’과 연관한 두 번째 내용은 신선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즉 중국의 신선전설 중에 등장하는 ‘삼신산’이 그것인데, 이것은 도교에서 중시하는 신선의 거주지, 즉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방장산(方丈山)이다. 『전경』에서는 구천상제의 출생지가 도교의 ‘삼신산’과 합치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상제의 탄생지가 ‘선인포전혈(仙人布鬲穴)’에 위치하는데, 이 혈위(穴位)의 명칭과 특징 및 혈위에 대한 풍수(風水)를 중시하는 태도 등은 모두 대순진리회가 도교 및 중화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설에 나오는 신산(神山)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특별히 이 ‘세’ 개의 산을 선택한

1) 대순종교문화연구원 편, 『전경』,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p.1-2.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전경』에 근거한다.

것은 사람들이 ‘삼’을 좋아하는 문화를 드러낸 것이다.

대순진리회 『진경』은 구천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도래하여 행한 일에서도 ‘삼’과 관련한 내용을 다수 기록하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籠岩)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막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권하고 「이 길이 남조선 뱃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三十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진(大陣)은 일행 三十리라」하시고 고부 송월리(松月里) 최(崔)씨의 재실에 거주하는 박 공우(朴公又)의 집에 유숙하셨도다. 공우와 경석에게 가라사대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通精神)이 나오노라. 나의 일은 비록 부모형제일지라도 모르는 일이니라」 또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sup>2)</sup>

이밖에도 상제의 행록 중에는 반복적으로 ‘삼천(三天)’, ‘삼인(三人)’, ‘삼차(三次)’, ‘삼자(三字)’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제께서 용암리에 계실 때 경석(京石)이 일찍이 여러 차례 상제를 정읍으로 오시도록 요청했으나 도무지 허락하지 않으셨다. 후에 경석이 집으로 돌아가 가사를 정리하고 돌아와 다시 상제를 알현했으나 여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사흘 후에 마침내 경석의 청을 허락하셨다.<sup>3)</sup>

상제와 도주께서는 여러 차례 종도들에게 ‘석 자의 글’을 말하게 하고, 혹은 문답을 ‘세 번(三次)’ 반복하기도 했다.

대표적 예로, 어느 날 상제께서 이도삼(李道三)에게 글 석 자를 부르게 하니, 도삼이 ‘천지인’이라 했다는 일화가 있다.<sup>4)</sup>

2) 같은 책, pp.278-279.

3) 같은 책, pp.43.

4) 같은 책, p.44.

또 다른 예로, 한번은 최창조(崔昌祚)의 집에서 상제께서 종도 수십 명을 둘러앉히고 각기 세 글자씩 말하게 했다.<sup>5)</sup>

또 한번은 상제께서 정읍에 가셨는데 공우(公又)가 배행했다. 상제께서 사거리 가운데서 공우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고 물으니 공우가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상제께서 3번 물으니 공우가 똑같이 세 번 대답했다. 후에 그들은 함께 상제의 동향에게 갔는데 이 또한 상제의 종도 손병욱(孫秉旭)의 집이었다. 상제께서는 손병욱에게 ‘돈 서 돈’을 청하시고, 이후 다시 ‘두 냥’을 청하셨다. 그런 다음 병욱의 아내를 불러 ‘왜 그리하였느냐’고 세 번 물으셨다.<sup>6)</sup>

또 종도 형렬(亨烈)이 자기 딸을 ‘수부(首婦)’로 추천할 때 상제가 종도들에게 약장을 방 가운데로 옮겨오게 하고 형렬의 딸에게 약장을 세 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했다.<sup>7)</sup>

또 다른 예를 보자.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목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뿔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 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sup>8)</sup>

또 『전경』 「교운」 2장에 다음의 기록이 있다.

도주께서 다음 달에 박 한경(朴漢慶)과 김 용화(金容和)·김 해구(金海九)·오 치국(吳治國)·류 철규(柳喆珪)·이 윤섭(李允燮)·류 한규(柳漢珪)·김 영하(金永河)·오 영식(吳永植) 등을 데리시고 해인사(海印寺) 경내에 있는 관음전(觀音殿)이자 심검당(尋劍堂) 뒤편의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사흘 동안 공부를 하셨도다.<sup>9)</sup>

---

5) 같은 책, p.56.

6) 같은 책, pp.61-62.

7) 같은 책, p.87.

8) 같은 책, p.96.

전명숙(全明淑)과 최수운(崔水雲)을 위한 해원(解冤) 공사(公事)에서 상제께서는 이화춘(李化春)에게 다음과 같이 명한다.

백지 녀 장을 청 흥 황의 세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잇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주를 쓰고 그 종이 석 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잇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 10)

이런 기록도 나온다.

도주께서 정유년 十一月 二十一日 자시부터 무술년 三월 三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휴하고 백일 도수를 마치시니라. 五일에 심히 피로워하시므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밖에 시립케 한 후 도전 박 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 번 부르시더니<sup>11)</sup> 화천하시니라.<sup>12)</sup>

이밖에도 공사를 행하실 때, 상제와 도주께서 여러 차례 ‘세 사람’

9) 같은 책, p.225.

10) 같은 책, p.124.

11) 도주께서 화천하시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도적놈”이라 세 번 외친 것은 『황제음부경』 중의 관련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음부경』에서는 “도기(盜機)라 하여 천지인 삼재(三才)가 서로 기(氣)를 도적질하여 살아가니 이를 소멸하여야 비로소 서로 성장하게 한다 하였다. 『음부경』은 도교의 중요한 서적이다. 도교의 핵심 지역인 청성산 천사동에는 “도덕오천자, 음부삼백자”라는 대련(對聯)이 쓰여 있는데, 이렇듯 『음부경』이 『도덕경』과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보아도 『음부경』이 도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도주께서는 젊은 시절 중국에서 입산수도 하였으며 신인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 신인은 도문에서 숭앙하는 신선의 하나이며, 수도공부 중에 도주께서는 분명 『음부경』을 공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주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도적놈”이라 외친 것은 결코 무의식 중의 발언이 아니다. 이러한 면은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전경』, pp.230-231.

을 참여케 하셨다. 또 “세 사람이 모이면 관장의 공사를 처결하나니 우리 셋이면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리라”라고 이야기 하고, 날짜를 골라 출행하고 일을 할 때도 대개 3월 혹은 모월 초3일로 기일을 정했으며, 심지어 외출할 때 지니고 가는 여비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재물, 약품 구입 때도 항상 “석 냥”, “삼전”, “삼백 냥” 등의 숫자를 사용했다. 또한 불치의 질병을 말할 때도 대개는 3번째 발작 이후에 죽는다고 했다.<sup>13)</sup>

『전경』에서 ‘삼’이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근거로 할 때, 기본적으로 ‘삼’이 갖는 의미는 대체로 길하다(吉祥)거나 원만(圓滿)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公事)는 3번 해야 하고, 문답도 반복으로 세 번 하며, 출행은 3월·3일·3인이 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구하는 바와 행하는 바의 일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삼’이라는 특정된 부호적 기능을 지닌 시간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밖에 어떤 때는 ‘삼’이 갖고 있는 ‘완전성’과 ‘완결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도 갖게 된다. 따라서 몇몇 상황의 경우는 일이 발생하는 중에 사람들의 경외심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마침’과 ‘끝남’ 혹은 ‘무능무력’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일례로 질병이 세 번 발작하면 구할 수 없다거나 일이 세 번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거나, 도주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문 밖을 향해 세 번 큰 소리를 외쳤다가나 하는 등의 내용이 이에 속한다.

이처럼 특정한 경우에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삼’이라는 숫자 부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해 ‘삼’이 대순진리회 경전사상의 표현에서 중요한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의 『전경』에서는 왜 ‘삼’이라는 부호를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는가? 어떤 원인 혹은 요소가 이러한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순진리회 자체의 상황 및 ‘삼’이라는 숫자가 도교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13) 같은 책, p.51, 67, 81.

## II. 『전경』 중 ‘삼’의 『주역』적 사유

『주역』은 중국의 중요한 고대 서적의 하나이다. 또한 도교에서 신봉하는 강령 성격의 경서이기도 하다. 이 책의 사유방식과 기본 이념은 중화문화권의 중요한 문화준칙이다. 대순진리회도 이 책을 매우 중시한다. 대순진리회의 도주 및 종도들은 모두 이 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일례로, 『전경』의 「교운」 편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

도주께서 갑오년 가을에 박 한경에게 사략 상하권(史略上下卷)과 사서 삼경(四書三經)의 구관을 구하게 하시므로 이때에 통감(通鑑)·소학(小學)·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시전(詩傳)·서전(書傳)·중용(中庸)·주역(周易)의 구관을 구하여 올렸더니 이 책들은 그 후에 도장에 비치되었도다.<sup>14)</sup>

또 다른 기록도 있다.

류 찬명(柳贊明)은 도통(道通)이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이(離), 곤(坤), 태(兌)에 있으리라는 가르침을 상제로부터 받았느니라. 이 가르침을 받고 그는 큰 소리로 건감간진손이곤태(乾坎艮震巽離坤兌)를 읽고 상제의 앞에서 물러나왔도다.<sup>15)</sup>

상제께서 종도 여덟 사람과 무리들을 모아 놓고 교훈하시니라. 윤경은 상제의 말씀을 좇아 여덟 사람을 집에 모이게 하고 이를 상제께 아뢰니라. 그런데 어떻게 연락하다 보니 아홉 사람이 모이게 되니라. 윤경이 상제께 아홉 사람이 모였음을 아뢰니 상제께서 「무방하도다. 한 사람을 나의 시종으로 쓰리라」 말씀하시고 윤경의 집으로 오셨도다. 상제께서 등불을 끄게 하고 한 사람을 택하여 중앙에 세우고 나머지 여덟 사람을 팔방으로 세운 후에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이(離), 곤

14) 같은 책, p.225.

15) 같은 책, p.165.



(坤, 태(兌))를 외우게 하고 자리에 정좌한 종도 二十여 명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외우게 하셨도다. 무리들은 밤이 깊어짐에 외우는 것을 그치고 등불을 밝히고 상제의 훈계를 들었도다.<sup>16)</sup>

상제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차 공숙을 뽑아 따로 말씀 하셨는데 그는 소경이나라. 상제께서 「너는 통제사(統制使)가 되라. 一年 三百六十일을 맡았으니 돌아가서 三百六十명을 구하라. 이것은 곧 팔괘(八卦)를 맡기는 공사이니라」고 하셨도다.<sup>17)</sup>

상제께서 명하신 대로 六十四괘를 암송하고 갑자기 각통으로 생긴 오한 두통을 즉각에 고쳤느니라. 형렬이 이상히 여겨 그 연유를 여쭙었더니 상제께서 「八卦 가운데 오행이 감추어 있으니 오행의 기운을 응하게 한 것이 곧 약이 되었느니라」고 알려 주시니라.<sup>18)</sup>

『전경』에는 이와 유사한 기록들이 많다. 이러한 사료들은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는 물론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및 종도들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주역』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들은 『주역』을 읽었을 뿐 아니라 이 책을 도장에 소중히 보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순진리회는 지금도 종교 활동을 진행할 때 『주역』 괘상과 『주역』의 경전사상을 차용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사 양식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여 대순신앙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가 『주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종교 활동이 『주역』 사상과 지혜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역』 전서(全書)를 일람하면, 그 사유방식이 관물취상(觀物取象, 사물을 관찰하여 추상적 상을 취함)과 이상유의(以象類意, 상으로써

16) 같은 책, p.169.

17) 같은 책, p.168.

18) 같은 책, p.309.

뜻을 드러냄)를 두드러진 특색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유 방식에서는 유형(有形)의 사물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합적인 분류를 통해 추상적인 부호로 귀결시키고, 다시 추상적 부호로써 유형의 사물을 해석한다. 일례로 ‘천(天)·마(馬)·용(龍)’ 등의 구체적 사물을 개괄하는 것에서 ‘양(陽)·강건(強健)·강의(剛毅)’ 등의 추상적 성질과 특징을 추출한 다음 다시 ‘삼횡(三橫, 3개의 가로 직선)’을 사용해 이러한 성질과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의 부호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런 부호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삼횡’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마음속에서 ‘밝고 강함, 강건’ 등의 특질로서 ‘천·마·용’ 등의 형상을 해석하게 된다. ‘팔괘’는 바로 최초의 상징부호체계인데, 이는 『주역』의 기본적 부호체계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한자와 마찬가지로, 『주역』의 부호체계를 널리 이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의미를 알게 된다.

『주역』의 상징사유에서 형성된 부호체계가 지닌 가장 중요한 기능과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부호와 숫자의 방식으로 우주만물을 인식하고 해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만의 우주 모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전 중화문화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고대의 자연과학에 속하는 천문·역법·지리학·수학·의학 및 심지어 인문학 영역의 윤리학·정치학·종교학까지 이러한 사유양식을 기준으로 삼고, 부호와 숫자 등의 체계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의 전체적 의미를 해석했다. 일례로 중국 고대의 천학(天學)은 결코 그 목적이 순수하게 천체현상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상(天象)’을 파악함으로써 인간세상의 길흉을 관측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주역』이 말하는 “하늘이 형상을 드리워 길흉의 징조를 드러내며 성인은 그것을 형상화한다(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즉 ‘천상’에 대한 숫자와 부호를 해석함으로써 상천의 뜻을 엿보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처럼 ‘천학’은 바로 정치학·윤리학·의학·종교학 등 전 분야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에,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상징 사유를 거쳐 전체 사유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혹자는 중국문화에서 상징사유 자체가 전체사유와 혼연일체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삼’이라는 숫자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주역』에 나타나는 부호 상징 사유의 확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양식은 먼저 문화적인 측면에서 숫자 혹은 기타 부호가 어떤 의미와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역으로 다시 부호 혹은 숫자를 보고 즉시 그 특정한 의미를 해석한다. 이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화적인 이유로 마음속에서 ‘부호와 숫자의 의미’에 대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부호’와 ‘숫자’를 분명히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더 강한 신비감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부호를 해독하는 자에게 숭배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상제와 도주께서는 공사를 행할 때 반복적으로 ‘삼’을 사용한다. 일례로 ‘세 바퀴 돈다(轉三圈)’, ‘세 번 말하다(說三次)’ 등이 그것이다. ‘세 바퀴(三圈)’와 ‘세 번(三次)’ 등은 모두 특정한 부호이다. 유사한 문화전통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런 부호를 보았을 때, 자연적으로 ‘완벽함(圓滿)’과 ‘길함(吉利)’ 등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와 더불어 내심에 경외와 경건의 느낌이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일종의 모호하고 몽롱한 심리상태를 품게 되는데, 이는 해독을 할 수 없기에 부호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사실, 숙연한 상황에서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거나, 다양한 장소에서 동일한 부호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종교 신앙의 체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쉽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게 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의 반사 작용이 일어나게 한다. 이것 역시 『주역』이 선호한 교화의 양식이다. 즉 직관적 깨달음의 사유 체계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심오한 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일례로 ‘관(觀)’괘의 ‘단사(象辭)’를 보면, “‘관(觀)은 손만 씻고 제수를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존경하리라(觀，盥而不薦，有孚顒若)’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보고 교화되는 것이다(下觀而化也). 이 외에도 하늘의 신도를 봄에 사시가 틀리지 않으니, 성인이 신도로 가르침을 베풀어 천하가 복종한다(觀天之神道，而四時不忒，聖人以神道設教，而天下服矣)”라고 했다.<sup>19)</sup> 이는 제사 활동 중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세수하기와 술잔 올리는 동작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에 대한 정성과 공경 그리고 엄숙하고 공손한 감정을 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함을 암시한다. 이어 나오는 효사(爻辭)에서는 ‘관(觀)’괘가 또 각종 ‘관’의 상황을 연속해 보여주는데 이를테면, ‘동자의 봄(童觀)’, ‘옛봄(窺觀)’, ‘내가 내는 것 즉 나의 행동을 봄(觀我生)’, ‘그 내는 것을 봄(觀其生)’, ‘나라의 빛남을 봄(觀國之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관’의 다양한 형상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어 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 또한 그 형상에 따라 뜻을 취하도록 사고에 자극을 가함으로써 유추적 사고를 통해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돌연 글쓴이의 뜻과 생각을 깨닫도록 한다. ‘관’괘의 뒤에 곧이어 ‘서함(噬嗑)’괘가 나오는데, 그 괘상을 보면 입(口)속에 물건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괘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입을 사람의 입으로 볼 경우, 그 의미는 생활이 풍요로워 먹을 것이 많다는 뜻이 되고, 만약 입을 짐승의 입이나 알 수 없는 입구로 보고, 입속에 들어가는 물건을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 의미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로 해석된다. 해당 괘와 때효의 효사를 결합하여 순서에 따라 연속해서 신체를 비유로 삼으면 발가락·피부·코로부터 뼈와 귀에 이르기까지 모두 좋지 않은 형상이 되니, 위험이 발끝으로부터 천천히 정수리로 올라간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괘상의 ‘구중유물(口中有物)’은 ‘사람’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괘가 상호 연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서로 연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객관적 인식에서 강렬한 충격을 만들어 낸다. 설사 매우 무딘 사람이라도 이처럼 연속적이고

19) 黃壽祺·張善文, 『周易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p.160.

끊임없는 이미지 부호의 충격과 마주하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심지어 매우 심각한 공포심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패상의 경고성 의미는 말하지 않아도 자명하게 된다. 이러한 몇 가지 패를 참조해 볼 때, 『주역』에서는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형식을 통해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지 않는다. 글을 읽는 이의 내심을 자극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경로를 통해 작자의 의도를 터득하게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면 『주역』의 64괘가 거의 모두 유사한 교화의 사유 방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의 이러한 사유방식은 훗날 중화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유불도 삼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유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논리적 사유를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일부터 논리적 사유를 초월하며, ‘마음(心)’이 어떤 사건·언어·말투·동작 등 부호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직관적이고 즉각적이며 막힘없는 느낌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대나무를 순간 가격 하면 대나무가 곁을 따라 썩 갈라지는 것과 같다. 한 예로, 선종의 고승 향엄(香嚴)이 위산(滄山)에게 선(禪)의 진의(眞意)를 수차례 물었으나 위산이 그것을 설파하는 것을 거절한 적이 있다. 향엄은 화가 나서 평소에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 버리고 다시는 불법을 배우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는 울면서 위산에게 이별을 고한 후 남양충국사(南陽忠國師)의 옛터에 머물며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다. 어느 날 잡초를 베고 벌목하던 차에 우연히 기왓장 한 조각을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소리가 울리니 마치 황종(黃鐘)이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향엄은 마침내 돌연히 깨달음을 얻었고, 곧바로 목욕재개하고 향을 피운 후 위산이 있는 곳을 향해 큰 예를 올리면서 말로 깨우쳐주지 않은 은덕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sup>20)</sup> 향엄이 도를 깨닫도록 자극한 것은 바로 스스로의 동작, 동작이 일으킨 소리, 당시의 주위 환경과 그때의 정서,

20) 藍吉富, 『禪宗全書』(臺北: 文殊出版社, 中華民國七十七年印行), p.789.

분위기가 조합된 것으로, 이는 마치 조금만 늦어져 어긋나도 지나가 버리는 장면극과 같다. 여기에서는 극중 사람이 관객이기도 하고 또 행위자이기도 한데, 이런 류의 극이 지닌 특징은 통상적 의미의 명확한 논리적 함의를 갖춘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순진리회의 공사 가운데 ‘세 번(三次)’, ‘세 바퀴(三圈)’, ‘세 글자(三字)’ 등의 부호를 종교적 교화에서 운용하는 것은 중화문화에서 전파된 동일한 종류의 사유방식과 매우 비슷하다. 대순의 공사에는 ‘삼’이라는 부호를 운용하는 방식이 매우 많은데, 이에 대한 예로서 말, 행동, 은량(銀兩) 등이 있다. 그러나 『전경』에서는 이런 류의 부호가 암시하는 의미에 대해 결코 특별한 설명을 가하지 않는다. 이는 여기에 관심을 가진 자가 스스로의 감오(感悟)와 사색을 통해 터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경』 중에는 ‘삼’의 의미에 대해 한두 마디로 그 진상이나 감추어진 상황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 또한 그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일례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제께서 손병옥의 집에 가서 그에게 대략 ‘3전의 은자’를 가져오라 한 후 다시 2량의 은자를 가져오라 했는데, 뒤이어 또 병옥의 아내를 불러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고 3번 책문하였다. 상제께서 단지 ‘손병옥’의 아내를 책문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사실 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제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람들이 ‘삼’이라는 특정부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암시를 준 것이다. 이를 볼 때, 상제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암시를 줄 뿐 직접적으로 알려줄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어떤 이는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어떤 이는 중요한 암시를 놓쳐 버리게 된다. 이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깨우친 바에 따라 중요한 암시를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가르침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는 온전히 상징성에 대한 이해 혹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도의 진정한 의미를 포착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 Ⅲ. 『전경』의 ‘삼’으로 본 『주역』 ‘삼’의 전승과 발전

어떤 의미에서 『주역』은 ‘수서(數書)’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이 형이하의 천지만물에 대한 탐구이든 아니면 형이상상의 신묘 대도를 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주역』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로 인해 생겨나고 ‘숫자’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러므로 ‘숫자’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주역』에서는 “하늘에서 셋을 취하고 땅에서 둘을 취하여 수에 의지하고(參天兩地而倚數)”, “그 수를 극하여 마침내 천하의 상을 정한다(極其數, 遂定天下之象)”라 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의 수(天地之數)”에 통달하기만 하면 천지와 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천하의 조화를 모두 아우르되 지나치지 않고, 만물을 곡진히 이루되 거스르지 않는다(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는 것이며, 심지어 귀신과도 소통할 수 있어 “귀신의 일을 알게 된다(知鬼神之情狀)”는 것이다.

『주역』이 한 권의 신기한 숫자서(數字書)라는 의미에서 볼 때, ‘삼’의 작용은 매우 크다. 「계사」 상에서는 “육효의 움직임은 삼극의 도이다(六爻之動, 三極之道也)”라고 했다. 「계사」 하에서는 “『주역』 책은 광대하고 모든 것을 구비하였으므로, 천도·인도·지도가 있고, 궤는 삼재의 양쪽 면을 갖추었으므로 육으로 이루어졌다. 육은 다름 아닌 삼재의 도이다(易之爲書也, 廣大悉備. 有天道焉, 有人道焉, 有地道焉. 兼三才而兩之, 故六; 六者, 非它也, 三才之道也)”라고 하였다. 이는 『주역』이 천·지·인 삼재의 도를 말한 대서(大書)임을 의미한다. 팔경괘(八經卦)에서 보면, 삼재는 팔경괘의 상·중·하 삼효가 되는데, 위는 천, 가운데는 인, 아래는 지를 뜻한다. 「설괘」에 이르기를 “삼재를 겸하여 두 번 하였기 때문에, 『주역』이 여섯 번 그음에 궤가 이루어졌다(兼三才而兩之, 故『周易』六畫而成卦)”라고 했다. 이로써 팔괘구조가 ‘삼’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역경』 효사의 행문(行

文)에는, ‘삼’이라는 수가 대략 20여 군데 이상 빈번히 출현한다. 관련된 예로서 ‘몽(蒙)’괘의 “한 번은 일러주나 재삼 하면 모독하는 것이다(初筮告, 再三瀆)”, ‘수(需)’괘의 “청하지 않은 손님이 셋이 올 것이다(有不速之客三人來)”, ‘사(師)’괘의 “왕이 세 번 명을 내렸다(王三錫命)”, ‘동인(同人)’괘의 “삼 년을 일어나지 않는다(三歲不興)”, ‘감(坎)’괘의 “삼 년 동안 얻지 못하니 흉하다(三歲不得, 凶)”, ‘해(解)’괘의 “세 마리 여우를 사냥했다(田獲三狐)”, ‘혁(革)’괘의 “고친다는 말이 세 번이어야 믿음이 있다(革言三就, 有孚)” 등이 있다. 이러한 말이 사용된 장면과 의미를 고찰해보면 앞글에서 인용한 『전경』과 매우 유사하다. 즉 ‘삼’은 ‘길하고 상서롭다’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불길하고 상서롭지 않음’의 의미도 지닌다. 또한 ‘종결(終結)’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원만(圓滿)’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앞서 제기한 문제를 “왜 『주역』은 ‘삼’이라는 부호에 이와 같은 문화적 함의를 부여하는가?”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삼’으로 ‘원만’과 ‘완결’의 뜻을 나타내는 이유는 아마도 상고 시대의 인류가 자연 상태와 마주하여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일례로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았을 때, 천체가 그 빛을 비추어 서로 다르고, 각기 출현하는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 이를 ‘일월성’의 세 종류로 분류한 것이다. 상하로 하늘과 땅을 보면 우주만사가 또 자연히 ‘천지인’의 세층으로 나뉘진다.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람에게에는 두 손이 있고 매 손바닥에는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다른 네 개의 손가락이 모두 세 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다. 네 개의 손가락과 세 마디를 곱하면 십이이므로 이는 사계절을 포함한 십이 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 외에도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이 연결되는 부분의 무늬는 바로 천연의 한자 ‘삼’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한자 ‘삼’의 창조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한자 ‘삼’과 이러한 자연현상들 간의 상관성은 분명하고 쉽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인류가 ‘삼’에 대해 갖는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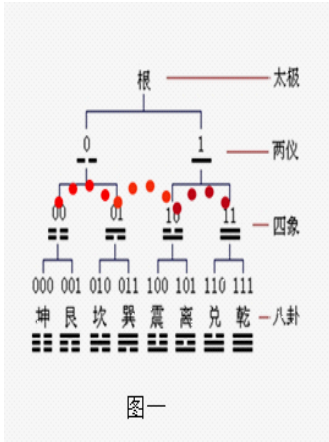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대자연과 인체의 상관성에 대해 『주역』에서는 “가까이는 자신에게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게서 취한다(近取諸身, 遠取諸物)”라 하였다. ‘삼’이라는 글자는 이로 인해 특별한 개념으로 신성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타 민족의 문화를 고찰해보면, ‘삼’이라는 부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놀랄 만큼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티베트지역 사람들은 일상이나 종교활동에서 ‘삼’을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매년 일월에 열리는 제사활동에서 모든 승려들은 세 잔의 수유차를 마시고, 제사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기타 참여자들도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행사를 진행하며, 매 그룹은 세 번씩 주방과 예배당을 오간다. 그들이 종도들에게 수유차를 나누어 줄 때도 한 통에 들어있는 차는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sup>21)</sup>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론(天論)』에서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하면 우주의 만물은 삼에 의해 결정된다. … 우리는 심지어 신령에 대해 숭배할 때도 삼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sup>22)</sup> 왜 인류는 이렇듯 공통적으로 ‘삼’을 선호하게 된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인류가 자연 및 자신들한테 나타나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을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고 깨우친 외에도 또 다른 본질적이고 심오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민족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또한 이 글의 논점도 아니지만, 동방 문화를 대표하는 『주역』에는 ‘삼을 숭상하는’ 사유의 기본적 구성 방식이 존재하므로 이로써 보다 본질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의 기본 틀은 태극에서 음양(陰陽) 양의(兩儀)가 나오고 음양 양의가 사상(四象)이 되고 사상이 팔괘(八卦)가 되는 것이다.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21) 李安宅 著, 『藏族宗教史之实地研究』(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 p.181.

22) 苗力田 主編, 徐开来 譯, 『亚里士多德全集』第二卷, 『论天』(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1), p.265.



이 그림에서 우리는 고대인이 만물을 먼저 두 부류 즉 양의로 나누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양의는 바로 음과 양이다. 음양의 뿌리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를 ‘태극’이라 부른다. ‘극’이라는 글자는 금석문으로 𠄎라고 쓴다. 왼쪽에 ‘목(木)’자가 하나 있는데, 이는 한 그루 나무를 나타낸다. 오른쪽은 한 사람이 손으로 도끼를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글자를 ‘벌목’한다는 의미로 생

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글자의 앞부분에 ‘구(口)’자가 있는데, ‘구’는 고대에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기를 뜻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글자는 ‘벌목’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나무를 향해 제를 올리는 제사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이런 행위가 요즘 사람의 생활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필자가 직접 본 바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고향에서는 후사가 없는 사람이 나무에 절하며 자식을 구하기도 하며, 태어난 자녀가 병약할 경우 그 어머니가 나무에 절하며 자녀의 건강을 빌기도 한다. 이 외에도 설날 혹은 정월 15일에 들에서 식물의 뿌리를 채취하여 집으로 가져오면 집안이 흥한다(興旺)는 풍습도 있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풍속은 이미 변화되어 일부 마을에서는 시장에서 아예 뿌리가 있는 사탕수수를 사오는 것으로 이전의 풍습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풍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극’은 사물의 근원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근(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만물의 뿌리는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 억지로 이름을 달아서 ‘태극’이라 하니,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요, 무명의 명이고, 얻을 수도 없고 오직 이름만 있을 뿐이다.

‘양의’는 바로 ‘음양’이다. 이는 이미 만들어진 만물에서 나온 것이니 바로 ‘형이하의 사물’이라는 것을 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인체의 측면에서 볼 때, 남녀가 된다. 세상 만물의 각도에서 보면 자웅(雌雄)·남북(南北)·한서(寒暑) 등 모든 생명의 번영과 번성을 뜻한다. 시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양의 특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음양은 다시 ‘사상(四象)’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부부가 교합하여 자식을 낳으니, 이로부터 만물이 파생되고, 시공이 운행되며 우주가 이루어진다. 『주역』의 그림에서는 이 모든 것의 관건이 되는 지점이 바로 ‘삼’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삼’에 이르러 만물이 생하고 우주가 시작되는데, 이는 상천이 세계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삼’이 되는 찰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주역』 「계사상」에서는 “그 수를 극하여 마침내 천하의 상이 정해진다(極其數, 遂定天下之象)”라고 했다. ‘삼’은 비록 작으나 또한 ‘극수(極數)’가 된다. 『주역』은 ‘삼을 숭상하고(尙三)’ 또 ‘삼을 두려워(畏三)’하는데, 이는 ‘삼’이 ‘시작(始)’이고 ‘마침(終)’이며, ‘이룸(成)’과 ‘훼손(毀)’을 동시에 뜻하기 때문이다. 동몽(童蒙)이 학문을 구할 때 “세 번이 아니면 공경이 아니다(三而不敬)”라고 말한 것은 ‘두려워(畏)’하는 것을 말한다. “왕사(王師)가 출행할 때 세 번 명한다(三而命)”는 것은 ‘이루는 것(成)’을 뜻한다. 또한 일을 행함에 있어 ‘삼년이 지나도 벗어나지 못한다(三歲不得)’는 것은 ‘흉(凶)’을 의미한다.

『주역』이 정립한 숫자 체계와 이를 토대로 ‘삼’에 부여한 특정한 의미 및 정서적 양식은 해당 문화권 내의 민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우주 생성 체계를 정립할 때에도 이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도덕경』에서 “도는 일을 낳고 일은 이를 낳고 이는 삼을 낳고 삼은 만물을 낳는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万物)”라고 했는데, 그 사고의 방향은 『주역』과 거의 일치한다. 우주의 구성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삼’을 ‘이룸(成)’의 관건으로 삼은 것이다. 『주역』과 『도덕경』의 부호 체계는 도교가 형성된 후, 신선신앙 체계에 전승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대순진리회는 『주역』이나 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삼을 숭상하는(尙三)’ 자신만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이는 곧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세 번째 문제이다.

#### IV. 『전경』의 ‘삼’과 도교 신선신앙의 연관성

도교는 노자를 교주로 신봉하고 『도덕경』과 『주역』 등을 기본 서적으로 삼는다. 『주역』에서 ‘삼을 숭상(尙三)’하는 정신과 『도덕경』에서 ‘삼’을 만물의 시작, 이름, 마침으로 여기는 사상은 도교의 신선 신앙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또한 이는 대순진리회의 ‘삼을 숭배하는(尙三)’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

도교의 신선체계 및 부록(符籙)과 도법 중에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삼’에 대한 경외심이 확연히 표현되어 있다. 『전경』을 살펴보면 대순진리회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도교의 신선체계에 대해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도교의 삼청존신(三清尊神)은 신선체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가장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신으로 신계가 매우 높다. 삼청존신(三清尊神)은 구체적으로 옥청원시천존(玉清元始天尊)·상청영보천존(上清靈寶天尊)과 태청도덕천존(太清道德天尊)을 가리킨다. 삼청존신은 하나의 기운(一氣)에서 비롯되어 존재하게 되었으며, 삼십육 천을 통섭(統攝)한다. 그래서 도교에 ‘일기화삼청(一氣化三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운급칠첩(雲笈七籤)』 권3 「도교삼통종원(道教三洞宗元)」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원래 도가(道家)는 만물의 생성 전에 존재하였다. 우주와 감응하여 묘일(妙一)이 생겨나고 묘일이 삼원(三元)으로 나누어졌다. 삼원이 삼기(三氣)로 변화하고 다시 삼기에서 삼재가 생성되었다. 삼재가 번식하자 만물이 갖추어졌다. 삼원(三元) 중의 첫 번째는 혼통태무원(混洞太無元)이고, 두 번째는 적혼태무원(赤混太無元)이며, 세 번째는 명적현통원(冥寂玄通元)이다. 혼통태무원에서 천보군(天寶君)이 화생하고, 적혼태무원에서 영보군(靈寶君)이 화생하고 명적현통원에서 신보군(神寶君)이 화생했다. 대통(大洞)의 흔적은 조물주(化主)가 되어 삼청경(三清境)을 다스린다. 삼청경은 곧 옥청(玉清), 상청(上清), 태청(太清)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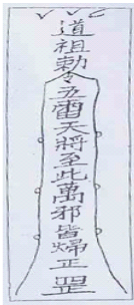
리킨다. 삼청경을 삼천(三天)이라고도 하는데, 삼천은 청미천(淸微天), 우여천(禹餘天), 대적천(大赤天)을 말한다. … 그러므로 『구천생신장경(九天生神章經)』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이 세 가지 명호는 비록 다르나 근본은 동일하다. 삼군(三君)이 각각 교주가 되니 이는 즉 삼통(三洞)의 존신(尊神)이다. 삼통은 통진(洞眞), 통현(洞玄), 통신(洞神)을 말한다. 천보군은 12부경(部經)을 말하여 통진교주라 하였고, 영보군은 12부경을 말하여 통현교주가 되고, 신보군은 12부경을 말하여 통신교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삼통을 합하여 36부존경(部尊經)이라 하였다. … 삼기라는 것은 현(玄)·원(元)·시(始)를 말한다. … 현(玄)·원(元)·시(始)로부터 음(陰)·양(陽)·화(和)가 생성되었고, 음·양·화로부터 천지인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도덕경』에서 도생일(道生一), 일생이(一生二), 이생삼(二生三), 삼생만물(三生万物)이라고 한 것이다. 현도(玄都)와 옥경(玉京) 아래로 36천이 있는데, 28천은 삼계(三界) 안에 있고, 8천은 삼계(三界) 밖에 있다.<sup>23)</sup>

도교는 “삼통을 근본으로 한다(三洞宗元)”라는 말에서 우리는 명확히 『도덕경』의 “도생일(道生一), 일생이(一生二), 이생삼(二生三), 삼생만물(三生万物)”의 사고 맥락을 볼 수 있다. 또한 만물의 시작과 이름을 나타내는 ‘삼’이 도교 신선신앙에 미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부터 도교의 삼청존신(三清尊神)·삼기(三氣)·삼계(三界)·삼통경서(三洞經書)의 개념과 체계구조 등이 형성되었다. 이후 이러한 개념이 끊임없이 발전, 변화되면서 유신(有神)·유인(有人)·유경(有經)·유전(有典)·유의(有儀)라는 복잡한 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러한 복잡한 신선신앙 체계에서는 대부분 ‘삼’을 분계점으로 삼는다. 일례로 신선

23) 『道藏』第22册, p.13, “原夫道家由肇, 起自无先. 垂迹應感, 生乎妙一. 從乎妙一, 分爲三元. 又從三元變成三氣, 又從三氣變生三才. 三才既滋, 万物斯備. 其三元者, 第一混洞太无元, 第二赤混太无元, 第三冥寂玄通元. 從混洞太无元化生天寶君; 從赤混太无元化生靈寶君; 從冥寂玄通元化生神寶君. 大洞之迹, 別出爲化主, 治在三清境. 其三清境者, 玉清、上清、太清是也, 亦名三天, 其三天者, 淸微天, 禹余天, 大赤天是也. …故『九天生神章經』云: 此三號雖殊, 本同一也. 此三君各爲教主, 即是三洞之尊神也. 其三洞者, 謂洞眞、洞玄、洞神是也. 天寶君說十二部經爲洞眞教主; 靈寶君說十二部經爲洞玄教主; 神寶君說十二部經爲洞神教主. 故三洞合成三十六部尊經. …其三氣者, 玄、元、始三氣也. …又從玄、元、始變生陰、陰、和, 又從陰、陰、和變生天、地、人. 故『道德經』云: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万物. 自玄都玉京已下, 合有三十六天. 二十八天是三界內, 八天是三界外.”

이 등장할 때는 대체로 삼인이 한 조가 되어 나타난다. 신선의 경지를 구분할 때에도 대체로 ‘삼’을 품계로 삼는다. 예를 들면, ‘천선(天仙)·지선(地仙)·인선(人仙)’이라는 신선의 세 계층, 하늘을 삼 십 삼천으로 구분하는 것, ‘삼청존신(三清尊神)’, ‘삼관대제(三官大帝)’ 등의 신선 조합에서는 모두 ‘삼’을 분계점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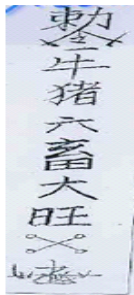
‘삼’이 도교신선의 체계와 틀의 핵심적 의미이기 때문에 부록의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도 도교 부록의 시작은 대체로 대표성을 띤 삼위 존신(尊神)의 부호를 그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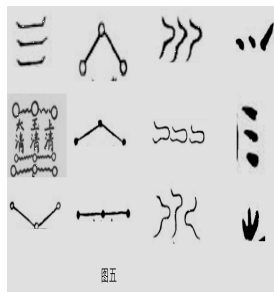
(圖二)



(圖三)



(圖四)



<그림 2>는 평안을 보장하는 도조영부(道祖靈符)이다. 부(符)의 머리 위쪽에 3개를 한 쌍으로 한 갈고리모양의 ‘V’ 도상이 있는데, 가운데는 원시천존을 나타내며, 왼편은 영보천존이고 오른편은 도덕천존이다. <그림 3>은 벽사의 기능을 지닌 오뇌부(五雷符)이다. 세 개의 ‘V’ 모양이 부록의 중간의 ‘뇌(雷)와 이(耳)’자 아래에 있다. 이 부도(符圖) 중간의 부호는 ‘바람(風)’을 나타내고, 좌측은 ‘불(火)’ 우측은 ‘우레(雷)’를 나타낸다. <그림 4>는 육축평안부(六畜平安符)이다. 돈사(돼지 우리)나 닭장 등 가축을 기르는 곳에 붙이는 것이다. ‘V’자 모양의 도안이 이 부적 상면에 있는데 모양이 팔자 모양처럼 두 개의 삐침에 하나의 가로 획이 있는 것으로 변형되어 표현되고 있다. 중간의 가로

획 하나는 성황신(城隍神)을 나타내고, 좌측은 토지신(土地神), 우측은 도교조사(道教祖師)를 나타낸다. 세 개의 모양으로 구성된 부호는 여러 부주(符呪)에서 그려지는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부도에 따라 다른 신령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화법(畫法) 외에 세 가지 부호를 한 조로 할 경우 많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난 열 두 종류의 부호는 이러한 예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는 세 개의 가로획(三橫), 세 개의 원형(三圈), 세 개의 삐침(三撇) 혹은 추측할 수 없는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부호는 삼청삼경(三清三境), 삼부사자(三部使者), 풍화뇌신(風火雷神), 일월성(日月星) 등을 나타내는데, 부도(符圖)의 가장 윗면, 중간 혹은 아랫면에 위치하여, 도교의 부주비술(符呪秘術)을 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교의(教義)와 부도(符圖)에서도 ‘삼을 숭배하는(尙三)’ 도교 신선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에서 볼 수 있는 ‘삼’의 의미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상제와 종도들이 중국의 서적을 이해하고 중시했기 때문이며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께서 많은 종교를 통섭하였기 때문이다.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서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을 선도의 종장으로, 진목을 불교의 종장으로 …”<sup>24)</sup>라는 상제의 말씀에서 ‘선도’는 곧 도교를 말한다. 상제님의 공사를 계승한 도주 조정산은 을유년(1885) 15세 때 중국으로 와서 정사년(1892) 4월에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는 중국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입산수도 하는데, 상제님의 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 하였다.<sup>25)</sup>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대순진리회와 도교 신선신앙 사이에 매우 밀접한 계승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께서 바로 중화의 강씨

24) 『전경』, p.172.

25) 같은 책, pp.198-199.

성의 일맥에서 근원하여 세상에 와서 주요한 사명을 지고 삼계공사(三界公事)를 행한 것이다. 구천상제께서는 삼계의 원(冤)을 풀고 모두가 화협하여 평안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삼계’는 ‘천지인’ 삼계를 가리키는데 이는 『주역』의 ‘삼재’와 일치하고 도교의 ‘천지인’ 삼계와도 일치한다. 구천상제께서 남겨준 셀 수 없이 많은 주문 중에 제신(諸神)을 논한 것은 기본적으로 도교와 같다. 일례로 오방주(五方呪)에서 태일성철(太一聖哲)을 언급한 것 외에도 ‘삼청진왕급급여율령(三清眞王急急如律令)’<sup>26)</sup>이 있다.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 많은 곳에서 ‘삼’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였는데, 중국 도교의 신선신앙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대순사상은 도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경』에는 상제께서 쓰고 그린 『현무경(玄武經)』과 몇몇 도형이 있다. 『현무경』의 내용은 주로 도상(圖像)인데, 도상 옆에 여러 개의 한자가 있고, 몇몇 한자는 한 줄로 되어 있다. 이들 도상에는 직접 ‘부(符)’를 표시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직접 적인 표시가 없는 것도 있으나 ‘부’와 유사하다. 부에 있는 글자를 보면 어떤 글자는 거꾸로 쓰여져 있고 어떤 글자는 바르게 쓰여져 있다. 예를 들어 “益者三友損者三友”, “天地之中央也, 故東西南北身依於心”, “天文·陰陽·政事” 등은 바르게, “史略·通鑒·大學·小學·中庸·論語·孟子·詩傳·書傳·周易”, “消滅陰害符”, “武夷九曲”, “神明符” 등은 뒤집어 쓰였다.<sup>27)</sup> 문자 부분에서 보면 대순진리회와 중화의 유교·도교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삼’을 숭상한 흔적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도상의 부분은 또 어떠한가?

<그림 6>은 상제께서 신경수(申京洙)의 집에서 그린 자부(字符)로, 그런 뒤에 벽에 붙였다.<sup>28)</sup> 이 그림에는 3개 조의 전형적 ‘삼’ 모양의

26) 같은 책, p.220.

27) 같은 책, pp.173-197.

28) 같은 책, pp.166-167.



부호가 있다. 이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으로 나누면, 사횡(斜橫, 비스듬한 직선)·원형(圓形)·쌍사별(雙斜撇, 쌍으로 된 비스듬한 삐침)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상 6개의 그림에 화살표는 필자가 첨가한 것이다. 원본 그림에는 화살표가 없다.)

<그림 7>에서 <그림 11>까지는 상제께서 쓴 『현무경』 내용이다.<sup>29)</sup>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삼’을 의도하는 부호 표식이 있다. 이 부도(符圖)들은 도교 부록 도상과 유사하다. 그 중 일부는 직접 어떤 종류의 부(符)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신명부’와 <그림 11>의 변두리에 쓰여진 ‘허령부’인데 거꾸로 쓴 것이다. 그러진 그림을 ‘부(符)’라 부르고, 한자로 글을 쓰는데, 똑바로 쓰던 거꾸로 쓰던 모두 도교와 관련이 있다. 도교의 부적은 대부분

29) 같은 책, pp.173-197.

‘영부(靈符)’ 혹은 ‘보부(寶符)’라 부른다. ‘신명’이라는 단어 역시 도교적인 색채가 농후하다. 이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허령부’의 ‘허령’이라는 두 글자는 도교에 나오는 신선수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도교경전인 『진고(眞誥)』에 “화개의 옆에 가면 천진이 있는데, 계곡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천산의 근원이다. 허령을 만날 수 있고, 만귀는 소멸된다. 이것을 양화천진이라 하는데, 부안산의 근원이다.”<sup>30)</sup> 여기서 말하는 ‘화개(華蓋)’는 ‘미(眉)’, ‘산원(山源)’은 코구멍 사이 갈라놓은 부분을 말한다. 이 문장은 도교의 도인안마술을 서술한 것으로, 신선수련의 방법에 속한다. ‘허령’은 수련이 일정한 정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신비한 경지이다. 무성자(務成子)는 유명한 도교저서인 『황정내경경서(黃庭內景經序)』에서 “먼저 감응을 얻어야 하는데, 허령을 얻는 자가 으뜸이다.”<sup>31)</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허령’은 ‘신령’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로 볼 때, ‘허령부’는 도교의 신선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제께서 쓴 『현무경』에는 도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 그림에는 거꾸로 쓰여진 ‘무이구곡(武夷九曲)’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무이구곡’은 중국 무이산의 명승지인데, 무이산 자체가 도교에서 신선 수련을 하는 복지(福地)의 하나이기도 하다. ‘무이구곡’ 강가에는 지지암(止止庵)이 있는데, 이곳은 도교 남종의 성지로 불리며, 수많은 유명한 도사들이 여기에서 수행을 하였다. 도교 남종의 오대조 백옥섬은 이곳에서 주지를 맡은 적 있으며, 『무이중건지지암기(武夷重建止止庵記)』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찬(自贊)』이라는 시를 썼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다니며 일생을 복기로 끼니를 에운다. 무이산차락을 가리키니, 구름 깊은 속 인

30) 吉川忠夫 等 編, 朱越利 譯, 『眞誥校註』(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p.282, “披華蓋之側, 延和天真, 入山澗之谷, 填天山之源, 則虛靈可見, 萬鬼滅身, 所謂仰和天真, 俯按山源也”

31) [唐]務成子、梁邱子註, 『黃庭經』(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p.18, “又當先求感應, 推訊虛靈者則佳也”

가가 있구나”<sup>32)</sup> 즉, 상제께서 쓰신 ‘무이구곡’이라는 네 글자는 도교의 신선수행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현무경』에 그려진 도상을 보면 도교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유교와 불교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의 구도에 있어서도 도교에서 그리는 장방형의 그림 구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도교와 비교해 볼 때 대순진리회의 부도는 그 형식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나 그림의 구도 면에서 도교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무경』 속에서 수많은 도교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삼’을 표시하는 의부(意符)는 도교 부도(符圖) 중의 삼청(三清)·삼경(三境)·일월성(日月星) 및 기타 삼신(三神)을 표시하는 도상(圖像)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현무경』의 문자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속에 나타나는 ‘삼’이라는 부호는 도교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즉 상제의 각 존신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그 내용에는 도교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전경』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상제께서 “강 태공이 십년의 경영으로 낚시 삼천육백 개를 버렸으니 이것이 어찌 한갓 주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 뿐이라.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72둔으로써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미화니라”고 말씀하셨다.<sup>33)</sup> 『전경』에는 72둔이나 화둔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다. ‘둔’이란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한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도 신비한 방법을 통해 어떤 사물을 사라지게 하거나, 혹은 두 곳에 동시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72둔의 ‘72’ 역시 『전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숫자이다. 이 숫자는 고대 중국의 역법(曆法)과 관련이 있는데, 천간지지의 역법에 따르면, 매 5일은 일‘후(候)’라 하고, 삼후는 일‘기(氣)’라 하는데 이렇게 하여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후라는 단어가

32) [宋]白玉蟾, 『白玉蟾全集』, 『道藏精華』 第46册 (臺北: 自由出版社印行), p.1007, “千古蓬頭跣足, 壹生服氣餐霞. 笑指武夷山下, 白雲深處人家”

33) 『전경』, p.325.

나오게 되었다. 일년은 365일인데 약수(約數)로 하면 360으로 하여, 72후가 된다. 72둔이란 은연중에 우주시공을 담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유롭게 오고가고, 은둔과 나타냄을 자연스럽게 하는 ‘둔’은 사실상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는 의미로, 이것이 곧 ‘72둔’이다. ‘화둔(火遁)’은 둔법을 하는 자가 둔을 할 때 ‘화’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전경』 속에서 상제께서 화둔을 할 때 항상 중도들에게 마른풀 등을 잘 간수하라고 하셨다. 『주역』에서 불 때 리괘(離卦)가 곧 ‘화’이다. 64괘 중 리괘를 보면, 상리하리(上離下離)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30이다. 팔경괘(八經卦)를 ‘선천팔괘방위도’에 따라 보면 ‘리’는 동방에 속하며, 구궁(九宮) 중 ‘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괘는 일반적으로 ‘삼리화(三離火)’라 불리는데, ‘리’화(火)가 동쪽에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말이다. 태양은 만물을 비추고 양생하는데, 이 역시 ‘삼’이 갖고 있는 ‘생장(生長)’의 의미와 일치하다. 상제께서 나는 ‘삼리화’라고 말하신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태양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이상 해석이 정확하다면, 상제께서 그린 『현무경』에 ‘삼’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신성(神性)을 의미하고자 하는데 있다. 상제께서는 『현무경』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이 중도들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기를 바랐으며, 삼계를 화합하는 공사도 원만하게 완성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한자에서 ‘삼점(三點)’은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현무경』의 그림과 『주역』사상을 비교해 볼 때 모두 ‘수화기제(水火既濟)’, ‘음양상합(陰陽相合)’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화기제’나 ‘음양상합’은 모두 상생과 조화라는 의미와 함께 만물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무경』의 ‘삼’은 그 쓰여진 의도가 깊고도 오묘하다고 할 수 있다. ‘삼리화’의 시각에서 보든, 도교의 시각에서 보든 『현무경』의 내용은 모두 『주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동시에 도교 신선신앙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

## V. 결어

『전경』을 살펴보면 상제나 도주는 물론 종도들 모두 도교의 기본 경전인 『역경』이나 『도덕경』 등을 매우 익숙히 알고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순진리회의 공사(公事) 활동, 부주(符呪) 문건, 상제와 도주의 행적 사료, 신령신앙 등의 내용 곳곳에서 ‘삼’이라는 특별한 숫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삼’은 생명과 시작을 나타내며 또한 완성과 완결을 의미한다. 대순진리회 신앙의 특징을 보면 그 배후에는 아주 깊은 중국문화의 영향이 있으며, 『주역』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도교신선신앙의 흔적이기도 하다. 물론 대순진리회는 자신만의 독창적이 재해석으로 이러한 문화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삼’이라는 숫자의 근원을 탐구하고, ‘삼’이 지니고 있는 철학적 사상을 파헤쳐 그 속의 오묘함을 발견한다면 대순사상의 깊을 뜻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典经』数字符号“三”的意义考论

杨燕\*

四川师范大学·教授

- |                           |                              |
|---------------------------|------------------------------|
| 一、『典经』与“三”                | 三、『典经』对“三”的使用是对『周易』尚“三”传统的发展 |
| 二、『典经』对“三”的偏爱是『周易』思维模式的延续 | 四、『典经』尚“三”是道教神仙信仰的扩展         |
|                           | 五、结语                         |

『典经』是韩国新兴教派大巡真理会的重要经典，记载了大巡真理会信仰对象的行录及公事、教法、权智、济生、预示等内容。在这些事件记载中，反复出现了一些特定的数字，如“三”，“六”，“七”，“二十四”，“四十九”，“七十二”等等。这些数字并不是偶然出现的，其背后有着深刻的哲学和宗教意涵信仰，探讨『典经』中这类数字背后的深意，有助于进一步阐发大巡真理会教义的内涵，帮助信众更加深刻理解并遵奉上帝的教义，鉴于篇幅，本文将主要以“三”这一数字为例，对该文化现象进行考察。

我们都知道，韩国文化整体受中华文化影响甚深，在这种文化背景下，大巡真理会又受道教思想影响特多。在中华文化中，自来有尚“三”的习俗，直至今日，仍多有保留。如民间结婚若仓促不能细细拣择好日子，或者嫌麻烦不想请人择日，即可选带“三”的日期，无论“三”、“十三”，还是“二十

---

\* 哲学博士，四川师范大学中国哲学与文化研究所副教授。已撰有『「朱子语类」经学思想研究』、『四书概论』等专著，发表学术论文30多篇。

三”，统统认为是“好日”。道教文化也崇尚“三”，如“三光”、“三才”、“三官”、“三清”等等，大都以“三”为吉。大巡真理会『典经』对“三”的运用与此类同。中华文化的民间部分与道教文化常交融影响，难分彼此。从道教文化来说，对“三”的爱好与特定意义解读，主要与『周易』、『道德经』及道教神仙信仰有关，大巡真理会『典经』中的“用三”现象，是对中华文化，尤其是道教文化这一特征的继承和发展。具体来说，大巡真理会『典经』用“三”的背后意涵是以『易经』为基础，以古人的天文知识为背景，以道教的宗教神灵信仰为根据，并在朝鲜半岛特定的历史文化条件下进行了改造、活用，具有独特道家信仰指向的一种宗教文化现象。

## 一、『典经』与“三”

『典经』中“三”这个数字频频出现，有些是在很重要的公事记载中，有些是在看似无意的上帝行录中。如『典经』讲述九天上帝始祖晋州姜以式时，特别强调其第三十一代孙姜世义隐居古阜，又六代，有晋昌、愚昌、应昌三兄弟居于此地，且此地自古以来就有蓬莱山、瀛洲山和方丈山三神山，三神山之一的方丈山顺势而下，即为望帝峰和瀛洲山共同形成的仙人布甑穴，九天上帝就出生于由望帝山绵延而成的甑山东侧<sup>1)</sup>。

这段记录两次出现“三”这个符号。一是在追溯九天上帝始祖的时候，特别强调九天上帝是他始祖的第三十一代孙的后裔，又强调九天上帝更近的祖先为这第三十一代孙又六代之后的三兄弟，这些虽是真实的历史存在，但对历史的选择性叙述，却暗含了大巡真理会对“三”这一数字的偏爱。

这段记录第二类与“三”相关的内容是与神仙信仰密切联系在一起的，即中国神话传说中的“三神山”，也是道教重要神仙的居住地：蓬莱山、瀛洲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典经』，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第1、2页。



山和方丈山。九天上帝之出生地与道教“三神山”相合，且位于“仙人布氈穴”处，无论此穴位的名称、特点，以及对穴位风水的重视本身，都在显示大巡真理会与道教，与中华文化之间密切的关系。传说中神山数量众多，突出选出“三”座，是人们爱“三”的一种文化表达。

而大巡『典经』记载上帝自述来到世间，其所行之事也多与“三”有关，文曰：

一日，上帝携京石离开龙岩，在前往井邑的途中，途经院坪一酒馆，遂购酒邀路人一起饮用。上帝道：“此路乃南朝鲜水路也，船载满货方可启程。”说完催促行程，走到三十里处时，说道：“大阵日行三十里。”说完当晚留宿于正在古阜松月里崔氏斋室居住的朴公又处。对公又和京石道：“今遇想见之人，通精神可出来矣。吾所行之事，父母兄弟亦不知晓。”又道：“吾降西洋大法国之天启塔，大巡天下，拥有三界大权，开辟三界，开启仙境，为拯救苍生于毁灭巡回东方中，来到朝鲜之地……”<sup>2)</sup>

除此之外，在上帝的行录中，还多次出现“三天”、“三人”、“三次”、“三字”等意向。

如上帝在龙岩里时，京石曾多次邀请上帝前往井邑，上帝都不答应。后来，京石回家料理家事，回来再次谒见上帝，上帝还是不答应，但是，这次以后又过了三天，上帝最终却答应了京石的请求。<sup>3)</sup>

上帝或道主还曾多次要信徒说“三个字”，或在回答中反复“三次”。

如：一日，上帝命李道三说三个字，道三曰：“天、地、人。”<sup>4)</sup>

又如：一次在崔昌祚家，上帝让数十名从徒围其坐下，令其各说三字。<sup>5)</sup>

再如：某日上帝在井邑，公又陪同，上帝在十字路中央问公又“应往何处去？”他回答“请到寒舍”，“上帝问了三次，公又同样回答了三次”，后来他们一起去了上帝的同乡，也是上帝的信徒孙秉旭家里，向他要了约

---

2) 『典经』第278-279页。

3) 『典经』第43页。

4) 『典经』第44页。

5) 『典经』第56页。

“三钱银子”，然后又要了二两银子，随后，又把秉旭的妻子叫来，责问她三遍为何如此” …。6)

又，在信徒亨烈推荐自己的女儿作“首妇”时，上帝命众从徒将药柜移到房间中央，命亨烈女儿绕柜三圈后站到一旁7)。

又：

一日众从徒聚集，上帝对其说道：“旧时上天徒行杀人之公事，缺乏日用百物，人类无法得以生存，因此，如今不得不加以革新调整。”说完便行了三日公事。8)

又，在『典经·教运』第二章记载：

次月，道主携朴汉庆、金容和、金海九 … 等人前往海印寺。于寺内观音殿及寻剑堂后的茶炉经卷屋内行工夫三日。9)

又，在为全明淑和崔水云解冤公事中，上帝命李化春：

同时准备三张白纸，染青红黄三色后粘连在一起，拴在伐回的松树最上面的树枝上。又在另外三张白纸上写下侍天咒后，包一些黄土，将三张纸连缀起来也挂在松枝上。然后，将松树立于家门前，其形状正如旗杆 …”10)

又：

道主于丁酉年十一月二十一日子时至戊戌年三月三日行了百日工夫。其间自始至终不休不眠。三月五日，道主深感身体不适，遂于部们找来韩医和洋医。然道主说道：“为时已晚矣。”令全体干部于次日未时侍立于门外，命都典朴汉庆立于身边，手置于都典之头上，吩咐负责整个教团的经营。又道：“五十年工夫终毕，至气今至四月来。是今年也。吾去矣，众人勿因吾之离去而有丝毫之灰

---

6) 『典经』第61、62页。

7) 『典经』第87页。

8) 『典经』第96页。

9) 『典经』第226页。

10) 『典经』第124页。

心，按迄今所行善加奉行。”说罢，又向门外高喊三声“盗贼！”<sup>11)</sup>后，化天而去。<sup>12)</sup>

另外，在做公事时，上帝、道主多次有令“三人”参与的作法。且云“三人聚则能公正处理公案”；选日子出行、做事多有三月或某月初三，就连外出所带银两，施人财物，购买药品，也常为“三两”“三钱”，“三百两”等数字，疾病不治也多为第三次发作<sup>13)</sup>，等等。

根据“三”在『典经』中的这些使用场合，从较浅的层次我们大致可以看出，“三”的使用意涵在大部分时候与吉祥、圆满有关。比如公事需做三次，问答反复三次，出行选三月、三日、三人等，都是为了所求、所行之事能够顺利，因此选择带有“三”这一特定符号特质的时间进行。但是，在另外一些时候，“三”因其所具有的“完满性”、“完结性”又带有不可挽回的内涵，从而在某些事情的发生中引起人们的敬、畏等情感，产生“结束”、“终止”、“无能无力”之意。如疾病的三次不可救，事物发生三次后不可挽回，道主仙化前向门外大喊三声等等。

如此大量地在特定场合有意识地，以特定意涵使用“三”这一数字符号，可见“三”在大巡真理会经典中的思想表达具有重要地位。

那么，为什么“三”这一符号，在大巡教典中会被人们翻译成这样一些意义呢？又是什么原因或者有哪些因素导致了这种特定文化意涵的形成呢？这就要探寻一下大巡真理会自身以及“三”这个数字和道教文化的关系。

---

11) 结合道主仙化的场景，此时，道主高喊三声“盗贼”一词，与『黄帝阴符经』意味颇合。『阴符经』讲“盗机”，天地人三才互盗，此消彼长。『阴符经』是道教重要典籍，道教祖庭青城山天师洞有一副对联“道德五千字，阴符三百字”，将『阴符经』与『道德经』相提并论，可见其地位。青少年时期的道主曾在中国入山修道，且得神人秘传，此神人当是道门尊奉的神仙之一，其学习内容中『阴符经』也一定是必修的部分，因此，他在仙化之前高呼“盗贼”绝不是无意而发。这也可以认为是从一个层面反映了大巡真理会与道教的关系。

12) 『典经』第230-231页。

13) 『典经』第51、67、81等页。

## 二、『典经』对“三”的偏爱是『周易』思维模式的延续

『周易』是中国古代最重要的典籍之一，也被道教奉为纲领性的经书，该书的思维模式以及基本理念是中华文化圈的重要文化准则。大巡真理会本身也非常重视这本书，大巡道主和教众对该书都非常熟悉。如：『典经·教运』章曰：

甲午年秋，道主命朴汉庆寻得旧版的『史略』上下卷和四书三经。朴汉庆便找来了旧版『通鉴』、『小学』、『大学』、『论语』、『孟子』、『诗传』、『书传』、『中庸』、『周易』等书呈予道主。后这些书籍皆藏于道场。<sup>14)</sup>

又如：

柳赞明从上帝处得知，道通存于乾、坎、艮、震、巽、离、坤、兑。受此教示，赞明大声颂读乾坎艮震巽离坤兑后，从上帝面前退了出来。<sup>15)</sup>

又如：

上帝聚集从徒们谆谆教诲。轮京按照上帝吩咐，将从徒八人招集到家中，禀报上帝皆已聚集。然实聚九人。轮京便禀告上帝，说实来了九人。上帝道：“无妨，其中一人作吾侍从。”说罢，来到轮京家。上帝令熄灭灯火后，选一人站在屋中央，其余八人分立八方，令其念诵“乾、坎、艮、震、巽、离、坤、兑”，并让正坐于周围的二十余从徒们随其念诵，一直念诵到深夜，再点亮灯火，接受上帝的训诫。<sup>16)</sup>

又：

上帝在此众从徒中特别选车公淑，单独对他开示，而他是一位盲人。上帝说道：“汝为统制使，负责一年三百六十日，回去召集来三百六十人。此即托付八卦之公事也。”<sup>17)</sup>

14) 『典经』第225页。

15) 『典经』第165页。

16) 『典经』第169页。

又：

亨烈依照上帝的教示，背诵六十四卦，只见因腿痛导致的恶寒与头疼在刹那间消失。对此深感不解，便问其缘由。上帝道：“八卦中蕴五行，应五行之气而得治也。”<sup>18)</sup>

类似的记载还有很多。这些史料表明，无论是大巡真理会的九天上帝，还是第二代道主赵鼎山及其信众，都对『周易』有相当程度的了解；他们不仅阅读『周易』，还将此书珍藏于道场之中；同时，大巡真理会还在宗教活动中，借助『周易』卦象和『周易』经典思想，创建了独具特色的公事模式，将之赋予更多的神秘意味，与大巡信仰联系在一起。可见，大巡真理会与『周易』有密切关系，其宗教活动蕴含着丰富的『周易』思想智慧。

纵观『周易』经全书，其思维模式以观物取象，以象类意为特出，这种思维模式从有形之物出发，对其进行整合分类，归结为抽象符号，再以抽象符号反解有形之物。例如，从“天、马、龙”等具体事物概括、抽象出“阳、强健、刚毅”等性质特征，再用“三横”的线段来代表这些性质特征。如此，就形成一个符号系统，凡了解这个符号系统的人，看到“三横”这一形象，即刻便在内心将其翻译为“阳刚、强健”等性质，以及“天、马、龙”等具体形象。“八卦”便是最初的一套象征符号系统，也是『周易』最基本的符号系统。就如今天的汉字一样，凡了解该符号系统的人，见之便知其意。

『周易』这一由象征思维而形成的符号系统，其最重要的功能特点之一就是以符号和数字的方式去认识、解读宇宙万物，并进一步建构自己的宇宙模式。这一思维方式对所有中华文化圈中的人都有重大影响。中国古代的自然科学，诸如天文、历法、地理学、数学、医学，以及作为人文学科的伦理学、政治学、宗教学等等，无不以这种思维模式为基准，通过符号、数字等系统对事物进行本质的把握和整体意义的解读。如中国古代的天学，其目的并非为纯粹的对天体现象的认识，而是通过对“天象”的把握以观测世间的吉凶，也就是『周易』所讲的“天垂象，见吉凶，圣人象之”；通

17) 『典经』第168页。

18) 『典经』第309页。

过对“天象”的数字、符号化解读，来窥测上天的意旨，如此，“天学”就与政治学、伦理学、医学、宗教学等等全部联系在了一起，牵一发而动全身，由象征思维而延伸为整体思维，或者说象征思维本身在中国文化中即与整体思维浑然一体。

大巡真理会对“三”这一数字的反复使用，从某种意义上说，正是『周易』符号象征思维的延伸表现。这种思维模式首先在文化上肯定数字或者其他符号与特定含义之间具有某种联系，然后反过来见到符号或数字即解读出特定含义。不能解读者，则会因为文化的原因，在内心先形成了“此符号、数字有特定意涵”的观念，且很多时候，因其不能明确解读该“符号”、“数字”而产生更加强烈的神秘感和敬畏感，同时对符号的解读者产生崇拜感。

上帝和道主在做公事时反复用“三”：“转三圈”、“说三次”等等，“三圈”、“三次”等都是特定的符号，见到这种符号的人，由于在同样或类似的文化传统中成长，自然在心中将之翻译为“圆满”、“吉利”等意义，并在内心产生敬畏肃穆之感。或者怀着一种懵懂的心态，因不能解读而更加感觉其具有神秘的力量。

事实上，一件事情在严肃的情形下反复三次，且多场合反复出现同类符号，从宗教信仰体验角度来看，显然更容易加深人们的印象，冲击人的内心，引起深层情感反射；而这也是『周易』尤其偏爱的一种教化模式，即通过直观感悟式思维模式而启迪人们领悟深奥道理的方式。如『观』卦之『彖』曰：“‘观，盥而不荐，有孚颙若’，下观而化也。观天之神道，而四时不忒；圣人以神道设教，而天下服矣。”<sup>19)</sup>这段话以在祭祀活动中反复出现的洗手、进爵动作，暗示观看者体悟对神灵的诚敬肃穆情感。在接下来的爻辞中，『观』卦又连续展示各种“观”的情形，如“童观”、“窥观”、“观我生”、“观其生”、“观国之光”等，让“观”的形形色色意象不断出现，以敲击读书人的内心，激发其依象取义，比类思考，最后产生一种突发式的感悟，即顿然了悟其意、其思。又如紧邻『观』卦的『噬嗑』卦，卦象本身为口

19) 黄寿祺、张善文：『周易译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4年），第160页。

中有物，其意可作多解，若以“口”为人的嘴，则可解读为生活富有，吃食很多；如以“口”为兽口，或不知名事物的入口，以“食物”比喻人，则可解读为“身入险境”，等等。结合该卦每爻的爻辞，依次连续以身体为比，从脚趾、皮肤、鼻子，到骨头、耳朵等等，且都是不好的意象，似乎危险正缓缓从脚蔓延至头顶，可见，该卦象“口中有物”所喻为“人”处于危险之中。全卦将相互关联的意象彼此连接起来，这在客观上造成强烈的冲击力，即使是很迟钝的人面对这种接连不断的意象符号冲击，也会震撼起来，甚至产生一种深深的恐怖感，其劝诫意义不言自明。从这一卦来看，『周易』的这种教导或者警醒，非直接告知，而是由人自我感悟而辗转得来。若仔细分析起来，『周易』中六十四卦，可以说几乎每一卦都有类似的教化思维模式。

『周易』的这类思维模式后来在作为中华文化重要组成部分的儒、释、道三家体现颇多。这种思维模式最重要的特点就是重逻辑思维，或者忽略逻辑思维，甚至有意越过逻辑思维，讲究当下之“心”受到某事件、言语、声气、动作等符号冲击之下的直观、立刻、无芥蒂感受，如春风破竹，一击之下，顿然明了。如禅宗高僧香严在洵山座下百问禅之真意，而洵山拒绝为其说破，香严一怒之下，烧却平日所看文字，放言自此不学佛法。他泣别洵山之后，宿止于南阳忠国师遗迹处，开荒种田。有一天在芟草除木之时，偶然抛起一片瓦砾，击竹作声。这一声于万般寂静之中，犹如黄钟大吕，香严遂顿然醒悟，沐浴焚香，遥礼洵山，深谢其不说破之大恩德<sup>20</sup>。刺激香严悟道的正是他自己的一个动作，以及由此引起的声音，及当时的其他环境，并其时之情绪、氛围，这一切组合起来，就如一段稍纵即逝的情景剧，剧中人既是观者，又是为者，但此类剧之特点在于，没有通常意义的具有明确逻辑意涵的语言参与。

大巡公事中“三次”、“三圈”、“三字”等符号在宗教教化中的运用，与中华文化传播中这类思维模式有极大的类似性。大巡公事中“三”符号的运用形式很多，如说话、行动、银两等等，但『典经』对此类符号暗藏的意涵并

20) 蓝吉富主编：『禅宗全书』（台北：文殊出版社，中华民国七十七年印行），第789页。

不特别加以说明，这就要求关注者必须通过内心自我感悟思索而得。『典经』中偶然对其意涵的点破，也是在相当有限的程度上加以点拨。如前文讲到上帝去孙秉旭家里，向他要了约“三钱银子”，然后又要了二两银子，随后，又把秉旭的妻子叫来，责问她三遍“为何如此”的事情，此处上帝虽是问“孙秉旭”之妻，但其行为更像一场“展现”，目的是反复暗示信众思考“三”这一特定符号，但也只是暗示信众思考，并未有丝毫直接告知的意思，或得之或失之，就像『西游记』中的孙悟空一样，都要看信徒自己的造化了，而其得失之关键，全在于有没有灵性瞬间通过象征思维、感悟式思维把握大道真谛。

### 三、『典经』对“三”的使用是对『周易』尚“三”传统的发展

从某种意义上说，『周易』就是一部“数书”，无论是对形而下天地万物的探究，还是对形而上妙道高德的追寻，在『周易』的世界里，都是由“数”而成，因“数”而生，循“数”可知的。如『周易』曰：“参天两地而倚数”，“极其数，遂定天下之象”，只要我们掌握了“天地之数”，就可以妙通天地，所谓“范围天地之化而不过，曲成万物而不遗”，甚至可与鬼神沟通，而“知鬼神之情状”。

作为一部神奇的数字书，『周易』中“三”的作用可谓大矣。『系辞上』云：“六爻之动，三极之道也。”『系辞下』云：“易之为书也，广大悉备。有天道焉，有人道焉，有地道焉。兼三才而两之，故六；六者，非它也，三才之道也。”指出『周易』是一部讲述天、地、人三才之道的大书。从八经卦来看，三才为八经卦的上中下三爻，上为天，中为人，下为地。『说卦』云：“兼三才而两之，故『周易』六画而成卦。”可见，八卦构造，以“三”而成；再看『易经』爻辞行文，更是“三”数频现，共有约二十几处之多。如『蒙』卦“初筮告，再三渎”；『需』卦“有不速之客三人来”；『师』卦“王三锡命”；



『同人』卦“三岁不兴”；『坎』卦“三岁不得，凶”；『解』卦“田获三狐”；『革』卦“革言三就，有孚”等等。考察其所用场景及意义，竟与前文所引『典经』极其类似！即“三”在不同的场合，有“吉祥”之意，也有“不祥”之意；有“终结”之意，也有“圆满”之意。那么，前面的问题到这里，就变成了“为什么『周易』会赋予‘三’这一符号如此的文化意涵呢？”

首先，选择“三”代表“圆满”、“完结”，可能出自远古人类共有的那种对自然状态的自为式心灵体悟。如，抬头看天，星体因其光照不同，显示时间不同，而自然可简单分为“日月星”三类；纵向观天地，则宇宙万事又可自然分“天、人、地”三层；静观自身，人有两手，每个手掌除了大拇指外，其余四指皆自然分为三节，三四十二，包含四季十二月，而指节与手掌连接的纹理，正是一天然汉字“三”。这一自然现象是否与汉字“三”的创造有直接关系我们不得而知，但汉字“三”与这一自然现象间的相似性却是显而易见的，这种现象极有可能影响人类对“三”的认知和情感。因此，从大自然与自身构造来看，『周易』曰：“近取诸身，远取诸物”，其意莫非如此？“三”这个字极有可能因此而被特出并神圣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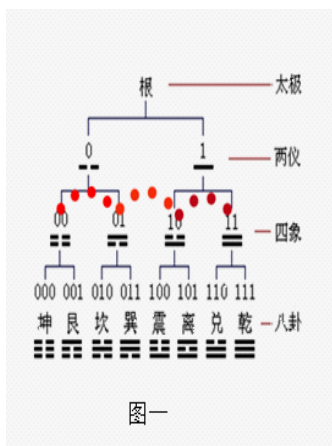
若考察其他民族文化，我们会发现，对“三”的符号意义解读具有惊人的雷同。如中国藏族地区的人民，自古以来在其日常宗教活动中，都把“三”当作一个重要符号。他们在每年第一个月举行的祭祀活动中，每一个僧人都会得到有三份酥油的茶，祭祀的人群年轻的分为三组，其余人也分为三组，每一组要到厨房三次，回来再到大经堂三次。僧人给群众分酥油茶时，每一桶要分给三个人…<sup>21)</sup>；在古希腊，亚里士多德在『天论』中说：“诚如毕达哥拉斯学派的人们所言，宇宙及其中的一切事物都由三所规定…我们就甚至在对于神灵的膜拜中使用这个数目。”<sup>22)</sup>等等。为什么人类对“三”会有如此共同的偏爱，除了前文讲到的，可能与人类对自然及自身直观、大量、具体的特质感觉、感受和体悟外，有没有更深刻的思维参与呢？对其他民族的思维我们不得而知，也不是我们此处讨论的重点，具体

21) 李安宅著：『藏族宗教史之实地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5年），第181页。


22) 苗力田主编，徐开来译『亚里士多德全集』第二卷，『论天』（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1年），第265页。

到东方文化的代表『周易』来说，其“尚三”思维也许从其基本构架模式，我们可以找到一些更深刻的线索。

『周易』的基本构架为由太极而阴阳两仪，由阴阳两仪而四象，由四象而八卦。若以一图标识则如下（见图一）：



图一

从这个图中我们可以看出古人首先将万物分为两类，即两仪，也就是阴和阳。阴阳之根不可知，因此称为“太极”。“极”字金文写作, 左边为一个“木”字，代表一棵大树，右边为一人手拿斧钺，似乎是砍伐大树的意思。但是，这个人面前有一个“口”“口”是古代重要的祭祀器皿，因此，这个人应该不是砍伐大树，而是向大树行祈祷类的祭祀活动。之所以做这样的推测，是因为笔者曾见到这种行为在今人生活中仍有的遗留。在笔者故乡，若某家人无法生

育，可拜树求子；若生下的子女病弱，可拜树为母。春节或者正月十五时节，有去田野捡拾植物大根回家，以使家族兴旺的风俗。随着城市化进程，现在该风俗在有些地方已演变为在集市购买带根的完整甘蔗这一形式。可见“极”与源起有关，所以又称为“根”，万物之根不可求，不可知，勉强名之而为“太极”，即万物之“根”，即无称之称，不可得而名也。

“两仪”即“阴阳”，此处是从已成的万物，即“形而下之器”反推而得。从人体来看，即为男女；从世界万物来看，即为雌雄、南北、寒暑等等一切生命繁衍，时空构建必须的两种特质。这两种特征两两相和而成“四象”，即结为夫妻，夫妻交合而生子，由此万物衍生，时空运转而宇宙成。从『周易』架构图中可以看出，这一关键点即为“三”。至“三”而万物生，宇宙始。这就好比上天造这世界，这一时刻，便为一切“成了”。『易·系辞上』曰：“极其数，遂定天下之象。”“三”虽小，亦为“极数”。所以，『周易』要“尚三”又

“畏三”，因其为“始”，为“终”，为“成”，亦为“毁”。童蒙求学，三而不敬，是为“畏”；王师出动，三而命，是为求“成”；行事“三岁不得”，是为“凶”；

『周易』这一数字建构系统及由此赋予“三”的特定意涵及情绪的模式，影响所有该文化圈内的民众。老子在构建『道德经』宇宙生成体系时，亦受此深刻影响，『道德经』曰“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万物”，其思路与『周易』几乎一致，在宇宙构建中，将“三”作为“成”之关键。道教形成后，『周易』及『道德经』的这一符号构建模式又传予道教的神仙信仰体系，而大巡真理会又因其与道教、『周易』千丝万缕的联系而辗转接纳这一模式，形成了自己的“尚三”传统。这便是我们下面要讨论的第三个问题。

#### 四、『典经』尚“三”是道教神仙信仰的扩展

道教奉老子为教主，『道德经』『周易』等书籍为基本典籍，无论是『周易』“尚三”，还是『道德经』以“三”为万物之始、之成、之终的思想，都在道教的神仙信仰中留下深深的痕迹，并辗转影响大巡真理会的“尚三”思维。

道教对“三”的敬畏之情，在神仙系统构建以及其符箓道法之中有明显且典型的表现，从『典经』来看，大巡真理会与此表现一致。我们先来看道教的神仙系统。在道教神仙体系中，最著名、最古老且神阶特高的神为三清尊神，即玉清元始天尊、上清灵宝天尊和太清道德天尊，三清尊神源于一气，统摄三十六天，所以道教有“一气化三清”的说法。『云笈七籤』卷三『道教三洞宗元』曰：

原夫道家由肇，起自无先。垂迹应感，生乎妙一。从乎妙一，分为三元。又从三元变成三气，又从三气变生三才。三才既滋，万物斯备。其三元者，第一混洞太无元，第二赤混太无元，第三冥寂玄通元。从混洞太无元化生天宝君；从赤混太无元化生灵宝君；从冥寂玄通元化生神宝君。大洞之迹，别出为化主，治在三清境。其三清境者，玉清、上清、太清是也……故『九天生神章经』云：此三号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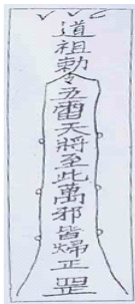
殊，本同一也。此三君各为教主，即是三洞之尊神也。其三洞者，谓洞真、洞玄、洞神是也。天宝君说十二部经为洞真教主；灵宝君说十二部经为洞玄教主；神宝君说十二部经为洞神教主。故三洞合成三十六部尊经…其三气者，玄、元、始三气也…又从玄、元、始变生阴、阳、和，又从阴、阳、和变生天、地、人。故『道德经』云：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万物。自玄都玉京已下，合有三十六天。二十八天是三界内，八天是三界外。<sup>23)</sup>

在这段叙述道教三洞宗元的话里，我们可明确看到『道德经』“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万物”的思路，发现“三”为万物始成之关键点思想在道教神仙信仰汇中的影响。道教的三清尊神、三气、三界、三洞经书概念及体系构建等等都由此而生发，进而不断演化变生，成就了一个有神、有人、有经、有典、有仪的复杂体系。在这个复杂的神仙信仰体系中，多以“三”为分界点。如神仙出场，多为三个一组。境界划分，多以“三”为品阶。如道教神仙有“天仙、地仙、人仙”三大类；天有三十三层；除三清尊神外，还有“三官大帝”等神仙组合。

由于“三”在道教神仙体系构建中的关节点意涵，为了保证符篆的有效性，道教符篆的起首大都要画出代表三位尊神的符号(见图二、图三、图四)。

图二是一张保平安的道祖灵符，符头上的三个像对勾的“V”的图像，中间代表元始天尊，左边为灵宝天尊，右边为道德天尊。图三是一张具有辟邪功能的五雷符。三个“V”形图像放到了符篆中一个变形“雷、耳”字的下面，在这张符图里中间的符号代表“风”，左边代表“火”，右边代表“雷”。图四是一张六畜平安符，贴在猪圈、鸡圈等家禽饲养处的。“V”形图案在这个符上面变化为两撇一横，中间一横代表城隍神，左边代表土地神，右边代表道教祖师。这两类三个一组的符号根据在不同符咒中所处位置不同，代表不同的神灵；同时，除了这两种画法，三个一组的这种符号还有多种变形。图五所示的十二种也只是其中的一部分，它们或为三横，或为三圈，或为三撇，或为不规则形状；作为特出的符号，它们或表示三清三境，或表示三部使者，或表示风、火、雷神，或为日月星等等，出现在符图的最上面，或中间，或下面，在道教的符咒秘术执行中起着重要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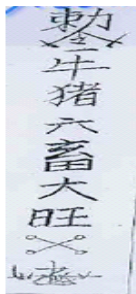
23) [宋]张君房纂辑、蒋力生等校注：『云笈七籤』卷三(北京：华夏出版社，1996年)，第12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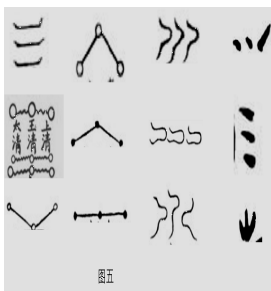
(图二)



(图三)



(图四)



图五

道教神仙信仰中这一“尚三”的特点在大巡真理会教义和符图中也可以看到，而且有极大的可能是受到了道教影响后的现象。除了前文我们谈到的大巡真理会上帝与从徒对中华典籍的了解和重视这一原因外，大巡真理会的九天上帝倡导多教合流，他说：“仙道、佛道、儒道、西道乃世界各族属文化之基石。如今立崔水云为仙道宗长，震默为佛道宗长…”<sup>24)</sup>而承继上帝公事的大巡道主赵鼎山，更是在乙酉年(1885年)，年方十五岁时即来到中国，于丁巳年(1907年)四月返回朝鲜，在中国度过7年时光，其间道主曾入山修道，并得神人秘传。<sup>25)</sup>可见大巡真理会与道教之间有直接的承继关系。

大巡真理会的九天上帝即为源于中华的姜姓一脉，祂来到世间，所负的主要使命为行三界公事，化三界冤怨，构建和谐安康的新世界。大巡所说的“三界”，即指“天、地、人”三界，与『易经』“三才”一致，也与道教的“天、地、人”三界一致。在九天上帝所留下的为数不多的咒文中，其所论诸神与道教基本相同，在五方咒中，除提到太一圣哲外，更疾呼“三清真王急急如律令”<sup>26)</sup>。又多处实行公事时，以“三”为数，可见其神仙信仰中亦有此传统，且与道教有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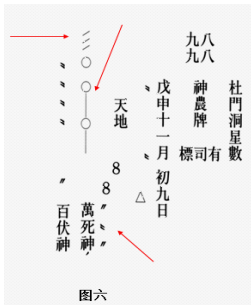
另外，在『典经』中还保存了上帝所书画的『玄武经』和一些图形。『玄武

24) 『典经』第172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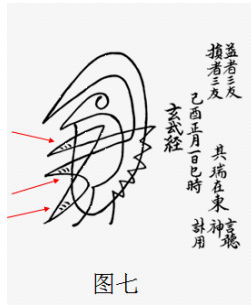
25) 『典经』第198-199页。

26) 『典经』第220页。

经』的内容主要也是图像，图像旁边多配有汉字，也有些汉字单列。这些图像有些直接标识为“符”，有些未标识，但与“符”类似。文字部分有些是反写的汉字，有些是正写的汉字，内容如“益者三友，损者三友”，“天地之中央也，故东南西北身依于心”，“天文、阴阳、政事”，“史略、通鉴、大学、小学、中庸、论语、孟子、诗传、书传、周易”(本组字为反写)，“消灭阴害符”(反写)，“武夷九曲”(反写)，“神明符”(反写)等等<sup>27)</sup>。从文字的部分来看，显见大巡真理会与中华儒、道教的关系，且有尚“三”的痕迹。那么，图像的部分又如何呢？



图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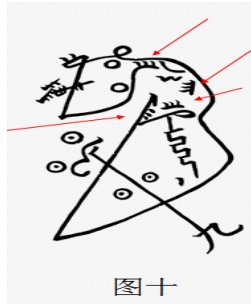
图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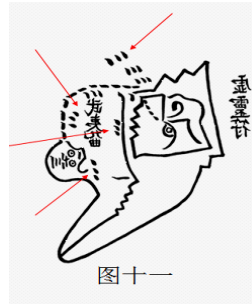
图八



图九



图十



图十一

(下面六副图中的箭头均为本文作者加入，非图像原有。)

其中图六是上帝画于申京洙家中的字符，画后贴于墙上<sup>28)</sup>。这幅图中

27) 『典经』第173-197页。

28) 『典经』第166-167页。

有三组典型的象“三”符号，分别为箭头所指的部分，有斜横、圆形、双斜撇三种形式。图七至图十一，为上帝所书『玄武经』内容<sup>29)</sup>，箭头所指部分同样是带有“三”意向的符号标识。这些符图从形式上看与道教符篆图像类似，且有些直接明示其为某种符。如前文提到的“神明符”，图十一旁边文字为“虚灵符”的反写等。将所画之图称为“符”，且以汉字写出，无论是正写、反写，都显现与道教的关系。道教符图大都称为“灵符”，有时也称“宝符”。“神明”一词更是道教修仙意味甚浓，非常明显的关系，不需要多说。至于“虚灵符”中的“虚灵”二字，在道教中也与修仙有着密切的关系。如道教修炼宝典之一的『真诰』曰：“披华盖之侧，延和天真，入山涧之谷，填天山之源，则虚灵可见，万鬼灭身，所谓仰和天真，俯按山源也。”<sup>30)</sup>按此处“华盖”为“眉”，“山源”为鼻子隔孔的地方，全文所讲为道教按摩导引，修真成仙之术，“虚灵”则是修炼达到一定层次后出现的神奇境界。务成子则在另一部著名的道教典籍『黄庭内景经序』中说：“又当先求感应，推讯虚灵者则佳也。”<sup>31)</sup>此处“虚灵”则含有“神灵”之意。可见“虚灵符”三字与道教神仙信仰之间的关系，也可见上帝书『玄武经』时，其内心所流动的道教意念。

另该符图内还有反写的“武夷九曲”四字，按“武夷九曲”为中国武夷山一大名胜，武夷山同时又是道教修仙福地之一，位于“武夷九曲”岸边的止庵被称为南宗修真圣地，许多名道都曾在此修行。道教南宗五祖白玉蟾祖师就曾在此任主持，他除有名作『武夷重建止庵记』传世外，更有『自赞』诗曰：“千古蓬头跣足，一生服气餐霞。笑指武夷山下，白云深处人家”<sup>32)</sup>。可见“武夷九曲”四字同样包含着丰富的道教修仙意味。

当然，『玄武经』所画的这些图又与道教符图有显然的不同，不仅图像中所配文字带有典型的儒家、佛教等其他宗派特征，且图形的构图和整体形式与道教符图大都以长方形出现这个特点也有较大差异，大巡真理会的符

29) 『典经』第173-197页。

30) [日]吉川忠夫等编 朱越利译：『真诰校注』(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6年)，第282页。

31) [唐]务成子、梁邱子注：『黄庭经』(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年)，第18页。

32) [宋]白玉蟾：『白玉蟾全集』，『道藏精华』第46册(台北：自由出版社印行)，第1007页。

图显得非常不规则，但是，即便如此，综合前面的论述，我们还是可以从『玄武经』图文构成元素中清晰看出其与道教间的关系十分密切，特别是大量表“三”的意符，与道教符图中标识三清、三境、日月星及其他三神的图像都极类似。因此，结合『玄武经』文字的内容，笔者认为，这些符图中的各种符号“三”，其意涵都很可能与道教符图意思类似，即指上界的各路尊神；

当然，其意或者另有所指，这主要是因为『典经』中有这样一段关于上帝的记载：

上帝道：“姜太公独钓十年，弃渔钩三千六，岂只是兴周成齐，是为流传于后世也。今吾以七十二遁兴火遁，吾乃三离火也。”<sup>33)</sup>七十二遁及火遁一事，『典经』中上帝前后多次提及。“遁”的意思为躲避、逃跑、隐藏。包括以某种神奇的方法使某物消失，或者出现两个方面的能力。七十二遁中的“七十二”也是『典经』中多次出现的一个特殊数字，这一数字与中国古代历法有关，按天干地支纪年法，每五天谓一“候”。三候为一“气”，这就是我们常说的“气候”了。一年三百六十五天，约数为三百六十，是为七十二候。之所以有七十二遁者，暗含包括宇宙时空之全部的意思。来去自由，隐现自如的“遁”其意实际就是在全时空中的无障碍移动，所以有“七十二”遁。“火遁”即实行遁法者在遁去时有“火”出现，因此，『典经』中上帝每行火遁，即嘱咐信众看好柴草等物。在『周易』中，离卦为“火”，六十四卦之离卦，其卦像为上离下离，顺序为第三十。在八经卦中，按先天八卦方位图，『离』卦位于东方，配九宫数“三”。所以离卦又常称为“三离火”，“离”火出于东方，其实就是太阳。阳光普照而万物生，这也与“三”所含的“生长”之意相合。上帝说自己是“三离火”，可能有暗指自己为“太阳”之意。

若此，则其所绘制的『玄武经』中大量出现的与“三”有关的符图，也有可能暗含上帝自身的神性。上帝通过『玄武经』的绘制，使自我神性长存于信众之中，以保证三界和合相生这一大公事的顺利完成。另在汉字体系“三点”又有“水”之意，则此图中又可引申出『周易』“水火既济”、“阴阳相

33) 『典经』第325页。



合”之意，而水火既济，阴阳相合，又恰是相生和谐的新世界重生，万物新起的起点。从这一点来看，『玄武经』中“三”形符图的意味可谓是非常之深远。但无论是从“三离火”的角度来看，还是从道教符图的角度来看，『玄武经』图文的内容都与『周易』有着密切的关系，也与道教的神仙信仰有密切的关系。

## 五、结语

总之，从『典经』来看，无论是上帝、道主还是大巡的信众，都对道教的基本典籍，如『易经』、『道德经』等书非常熟悉或十分重视，在大巡真理会的公事活动，符咒文件，上帝、道主行迹史料，神灵信仰等内容中，处处体现出对“三”这一特别数字的格外关注，“三”代表着生命，开始，也代表着完成和终结。大巡真理会这一信仰特点，背后有深厚的中华文化渊源，是『易经』思维的体现，也有道教神仙信仰的痕迹，同时，更有大巡真理会自身独特的展示和发挥。故而，了解“三”的符号文化背景，追溯“三”的思想发展脉络，揭示“三”的奥秘，这是认识大巡思想、领悟其教理内涵的关键环节之一。

## 【參考文獻】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典經』,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編, 『大巡指針』, 韓國: 大巡真理會出版部, 2010年版。
- 『道教符咒』(手抄本)。
- 『黃帝陰符經釋義』, 西安: 三秦出版社, 1993年版。
- [唐] 務成子、梁邱子注, 『黃庭經』,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年版。
- [宋] 白玉蟾, 『白玉蟾全集』, 『道藏精華』, 台北: 自由出版社印行。
- [晉] 王弼, 『老子道德經注』, 『諸子集成』第三冊, 北京: 中華書局, 1954年版。
- [宋] 張君房纂輯、蔣力生等校注, 『雲笈七籤』卷三, 北京: 華夏出版社, 1996年版。
- 吉川忠夫等編, 朱越利譯, 『真誥校注』,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年版。
- 藍吉富主編, 『禪宗全書·史傳部一』, 台北: 文殊出版社, 中華民國七十七年版。
- 李安宅著, 『藏族宗教史之實地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5年版。
- 苗力田主編, 徐開來譯『亞里士多德全集』第二卷, 『論天』,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1年版。
- 皮埃爾·吉羅著, 懷宇譯, 『符號學概論』,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8年版。
- 玄光居士編輯, 『高仙符箓教學課程』, 大漢易經學院發行。
- 黃壽祺、張善文, 『周易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4年版。

■국문 요약■

## 『전경』의 숫자 부호 ‘三’의 의미에 대하여

양옌(楊燕)

사천사범대학

본 논문은 『전경』에서는 나타나는 숫자 부호 ‘삼(三)’의 의미와 나아가 ‘삼’과 『주역』 그리고 도교 신선신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화의 문화에는 예부터 ‘삼’을 숭상하는 풍속이 있고, 도교문화도 ‘삼’을 숭상한다. 이는 주로 『주역』, 『도덕경』 및 도교 신선신앙과 관련이 있다.

한국문화는 전체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대순진리회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삼’이라는 숫자를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주역』에 나타나는 부호 상징 사유의 확장된 표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교의(教義)와 부도(符圖)에서도 ‘삼을 숭배하는(尙三)’ 도교 신선신앙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에서 볼 수 있는 ‘삼’의 의미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상제와 종도들이 중국의 서적을 이해하고 중시했기 때문이며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계서 많은 종교를 통섭하였기 때문이다.

공사(公事) 활동, 부주(符呪) 문건, 상제와 도주의 행적 사료, 신령신앙 등의 내용 곳곳에서 ‘삼’이라는 특별한 숫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

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삼’은 생명과 시작을 나타내며 또한 완성과 완결을 의미한다. 대순진리회 신앙의 특징을 보면 그 배후에는 아주 깊은 중국문화의 영향이 있으며, 『주역』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도교신선신앙의 흔적이기도 하다. 물론 대순진리회는 자신만의 독창적이 재해석으로 이러한 문화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삼’이라는 숫자의 근원을 탐구하고, ‘삼’이 지니고 있는 철학적 사상을 파헤쳐 그 속의 오묘함을 발견한다면 대순사상의 깊을 뜻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전경, 삼, 주역, 도교, 신선신앙, 현무경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24일~2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